

과학시스템

계란선별 및 난가공 시스템 세미나 개최

과학시스템(주)(대표 박만후)은 축산박람회 기간 중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10일 오후 1시 KISTOCK 축산박람회장 2층에서 ‘환경오염 없는 계분 처리법, 건조발효시스템’에 대해 네델란드 Dorset(도르세트) 대표이사 Henk Haaring의 강연이, 같은 날 오후 3시에 계란선별기와 난가공시스템의 새로운 세계적 추세에 대해 덴마크 Sanovo(사노보) Roberto Collaviti와 N. Molaka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오염 없는 계분처리시스템과 계란선별 및 난가공 시스템의 최신 추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 양계인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보일공업(주)

인도네시아 본격 진출



보일공업(주)(회장 정정애)는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에 돌입했다.

보일공업(주)는 양계케이지 전문 업체로 중국, 일본 등에 진출해 있다.

전화 : 031-352-6101

(62)812-1322-9249 (인도네시아 현지)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혹서기 특별 강화사료 공급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사료BU 사업본부장 윤영상, 이하 대한제당)는 고객 농장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 혹서기 기간 동안 특별 강화사료 공급을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과 습도의 증가로 인해 사료 섭취량의 감소와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무지개사료의 이번 조치로 인해 농장들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 강화사료는 효과적으로 혹서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영양적 기술이 적용되었다. 사료 섭취량 개선, 고온 스트레스 감소, 소화 흡수율 개선, 특수 첨가제의 강화 등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지개사료의 제품력이 혹서기 동안에도 부족함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공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더불어 항상 신선한 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을 강화하고, 영업 현장에서는 하절기 사양관리 컨설팅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어 농장의 생산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번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의 고객중심 경영이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사회적 기업활동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격려에 나서

지난 7월 10일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이보



균, 이하 카길)는 서울대 문화관에서 진행된 2015 인엑터스 코리아 국내대회에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사회적 기업활동을 모색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카길은 2010년부터 후원하며,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인재들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엑터스는 1975년 미국에서 시작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업가 정신, 시장 경제 원리 등을 전파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증진시키는 국제 비영리단체이다. 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31개 대학 학생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10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올해는 총 26개 대학이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일본 동북대학과 산학협력 조인식 가져



지난 7월 21일 카길은 일본 센다이(仙台)에 있는 동북대학과 손잡고 공동연구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을 함께한 일본 동북대학은 일본 제국대학(국립대학)중 3대 명문대학으로, 가축생산기능개발에 탁월한 연구를 보이고 있어서, 카길은 산학협력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를 높이기 위해 '맛'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차별화 연구에 도움을 받고, 특히 한우 송아지와 등심단면적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농가에게 다양한 교육을 함께 펼쳐 이를 나눌 예정이다.

군산공장 생명을 지켜 하트세이버 인증 받아



지난 7월 24일 카길 군산공장은 군산소방서에서 김갑양 부장이 하트세이버를 인증을 받는 영광을 얻었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하며 평상시에 안전 교육에 힘쓰는 것이 인정받은 것이어서 역시 카길은 다르구나 하는 탄사를 자아내게 하였다. 하트세이버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해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대한소생협회에서 공식 인증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하트세이버로 인증 받은 김갑양 부장은 지난 3월 15일 군산시 조기축구회의 친선경기 진행 중 59세 김모씨가 갑자기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없어진 심정지 상태가 되자, 119 신고 시키고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구급대에 인계하였다. 이날 김부

장이 초기 심폐소생술을 빨리 실시하여 뇌 손상 없이 회복하며 생명을 되살렸다. 카길은 2013년 전 사업장에 자동재세동기를 도입하며 전 직원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특히 김부장을 포함한 군산공장 직원 10명은 군산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 받고 인증을 받아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팜스코

7월 사료 판매량 신기록을 세우다!



2015년 “The Year of 1,000,000 tons”라는 슬로건 아래 (주)팜스코(대표 정학상) 사료사업본부가 100만톤 사료판매 달성을 향한 멋진 도전을 하고 있다.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이 뜨거운 여름, 현장을 누비며 흘렸던 땀방울이 7월에 접어들어 85,000톤 신기록 달성을 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팜스코 중부공장에서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팜스코 정학상 대표이사는 이러한 성장의 비결에는 “고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이 고객들과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고, 이분들의 꾸준한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산된 축산물에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유통단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팜스코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인식하고 국내 축산물의 가치 증진과 소비 촉진에도 앞장설 것이며,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activity campaign”을 통해 농장의 생산성 향상의 현장 노력과 경영 개선 활동을 꾸준

히 실시하여 고객 농장과 동반성장하는 팜스코의 길을 계속 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2015 하반기 경영계획 수립 Workshop 시행



(주)팜스코는 지난 7월 10-11일 용인 퓨처리더십센터에서 팜스코 경영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하반기 경영계획 수립 Workshop’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각 본부별 상반기 리부 및 하반기 중점 추진 전략과 환경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료사업본부에서는 사료 100만톤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Activity Campaign 및 신규활동을 강화하고, 판촉과장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계열화사업본부에서는 농장별로 시스템화된 관리 체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협력농가와외의 상생체계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간다는 계획이다. 신선식품 사업본부에서는 생고기 프랜차이즈업체 종로상회와의 MOU체결을 통해 삼겹살 판매를 확대함은 물론 하이포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육가공사업본부에서는 차별화된 신제품 출시로 기본 육가공 제품과 전통식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본격적인 판로개척에 힘쓰는다는 계획이다.

AT면역

면역기반사료 첫 수출 알리는 출정식 개최

2015년 8월 7일 AT면역(대표이사 광경훈, 구 AT



생명과학은 오창공장에서 '면역기반사료'의 첫 수출을 알리는 출정식이 있었다. 이날, AT면역의 광경훈 대표이사는 1999년 창사이래 '면역'이란 단어를 우리 축산업에 깊이 심어 온 AT면역의 뜻 깊은 해외시장 진출을 기념하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감에 그 의의를 표했다. 또한, AT 그룹 면역연구소 소장이자 본 수출을 이끌어 낸 기획조정실장 이병곤 박사는 2012년 중국 '면역' 런칭과 더불어 최근 VIV ASIA 2015 등의 부스참여 등을 통한 세계와 소통하는 면역기반사료를 만들어 국내 축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세계로 진출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국내에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체리부로

(주)한국원종 · (주)계영농산 합병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 그룹의 관계사인 (주)한국원종은 지난 7월 2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같은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계영농산을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하였다. 2002년 10월에 설립된 (주)한국원종은 매년 4~5만수의 원종계(아바에이커, GPS)를 수입, 3개소의 직영농장(육성1, 산란2)과 1개소의 전용부화장에서 연간 220만수의 종계를 생산하는 국내 육용종계 초생추(PS) 점유율이 29%인 업체이고 (주)계영농산은 2006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8개소

의 직영 종계장(육성3, 산란5)에서 연간 8천만수(계약농장 포함)의 병아리(CC)를 생산하는 곳으로 국내 계열업체 중 직영 종계장 점유율(60%)이 가장 높은 업체이다. 양사의 합병에 따라 새 출발하는 (주)한국원종(대표 김창섭)은 자산규모 600억원, 부채 비율 94%, 연 매출 600억원 대의 대형 농업회사법인이 되고, 대규모 직영 종계장과 최신설비의 부화장을 총괄 경영케 됨으로써 육용 병아리 생산 부분에서 선두로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실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주)체리부로는 추석 선물세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해 조기 매진으로 많은 인기를 끈 (주)체리부로의 선물세트는 올해에도 닭, 오리, 토종닭으로 구성된 다양한 제품들을 2만원대부터 5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선물세트 구성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제품은 '6년근 홍삼 삼계탕'이다. 충북인삼농협에서 엄선한 6년근 홍삼과 100% 국내산 원재료로 정성껏 끓인 이 제품은 기존 삼계탕 제품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한 홍삼의 풍미와 차별화된 맛으로 지속적인 제품 문의 및 선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친환경 닭 가슴살로 만든 촉촉한 닭 가슴살 슬라이스 180g과 닭 가슴살 통조림 포도씨유 맛·장조림 160g, 삼계탕 반마리 600g 등 가정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소포장 단위의 편의식 제품 등 선보이며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주)체리부로 선물세트의 주문 및 배송방법의 세부사항은 체리부로 홈페이지(www.cherrybro.com) 및 체리부로 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아이멜리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전국 멜리퀸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